
2025.06.19.

〈호흡과 고동 사이〉

- 인권유린상자 스프레드 -

리딩 by. 유이

인권유린상자에 들어오기 전:

1. 담천은 어떤 상황?

혹시 담천 씨도 청악 씨 처럼 어떤 집단의 리더를 맡고 있나요? 표면 상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담천 씨 또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역할이 낫설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는 사건에 휘말리기 전까지는 이러한 자신의 단단한 기반을 통해 어떤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관 상 이것은 어떤 목표를 띤 ‘작전’이라 봐도 될 것 같네요. 그가 주도한 이 계획은 아주 성공적이었으며 예상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2. 혼은 어떤 상황?

혼이는 별로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 갑자기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아하니 적에게 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이는 평소와 다름 없이 살아가고 있었으며, 자신이 어떠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못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주변에 도움을 쉽게 청하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능했다면 혼이는 청악에게 도움을 청했을까요? 아쉽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중이라, 혼이는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눈 깜박했더니 인권유린상자 안:

3. 혼을 본 담천의 반응

첫마디가 너무 매력적이군요. “또 길을 잃은 건가?” 그는 평소와 같이 태연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정신은 온통 혼이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있는 영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혼이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그녀가 길을 헤매던 중에 무언가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여기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담천은 스스로가 그런 혼이를 도와야 한다고 여깁니다. 홀로 이곳저곳을 헤매는 혼이를 생각하면 너무 가련하잖아요. 그는 혼이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4. 담천을 본 혼의 반응

혼이는 앞선 상황이 어지간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인지, 그런 와중에 담천을 만나게 되어 차라리 안심하고 있습니다. 혼이가 보는 상황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단단한 요새 안에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에 가깝네요. 그 만큼 바깥에서 일어났던 일은 혼이에게 있어 불행한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혼이는 아직 떨고 있고, 영원히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각보다 덜 불안한 것은, 지금 눈 앞에 담천이 있으니깐요. 그에게서 오는 안정감과 그를 믿는 마음이 큼니다. 머릿속이 정리 되고나면, 나갈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 때까지는 담천의 온기를 느끼며 가만히 있을 생각입니다.

5. 상자에서 탈출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한 행동

두 사람은 선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선부르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다가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둘 중 어느 누구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시간은 그저 흘러갑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탈출에 소극적인 이유는 아마 혼이에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담천은 혼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모양이라서요. 혼이가 충격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다 잡을 동안은 담천도 행동하지 않고 그녀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6. 상자에 갇힌 담천의 심정

담천은, 자각하진 않은 것 같지만 매우 다정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것은 혼이를 지키고 그녀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책임감과, 상자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다른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이 혼재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때문에 담천은 혼이를 기다리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죽음을 맞을 생각은 없어요. 일단 머릿속으로 가능한 정보를 취합해 정리하고, 자신 나름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런 담천에게 당황이나 불안감은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바위처럼 든든하고... 정신이 단단한 사람이예요.

7. 상자에 갇힌 혼의 심정

혼이는 꽤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정하려고 그녀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신이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그녀는 직전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마음 속으로는 빨리 돌아가서,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들을 자신이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엿보입니다. 아마, 뭔가 시도하려는 행동은 했었지만 결과가 따르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되어 더 충격을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한동안 혼이는 이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8. 두 사람의 노력은 성공했는가

성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더라도 했을까요? 어쨌거나 열려야 될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선부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선택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문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은 편견일 수 있지요. 어쨌든 두 사람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9. 탈출 후 두 사람의 관계 변화

상자 속에서 혼이는 자신의 두려움을 담천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었으며 담천은 혼이의 상처받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전의 관계가 조금 더 어른스럽게, 이성적인 형태의 관계였다면 상자에서 나온 이후의 두

사람은 서로 감정을 마주 여는 사이가 됩니다. 혼이에게 담천은 자신의 아픔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담천에게 혼이는 지켜주고싶은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상자를 나온 이후에는 혼이가 담천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속내를 털어놓고, 담천은 그런 혼이의 이야기에 웃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10. 담천이 혼에게 바라는 것

아 이게 진짜 웃긴 카드가 나왔는데요. 담천이 보는 혼이는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역설적으로, 담천 씨에게는 혼이에게 자신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녀가 조금만 유약해졌으면 좋겠다고 해요. 조금만 약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 어깨에 기대고 싶어도도록.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혼이는 날 찾지 않네. 그런 쓸쓸함이 조금 있나 봅니다.
(ㅋㅋㅋㅋ)

11. 담천이 바라는 관계의 형태

그는 남자로서 든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ㅠㅠ 웃기니까 줄이면 안 될까요? 아 너무 웃겨 어떡해(대폭소) 한 마디로 그는 연인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진도가 빠른 건 그가 앙큼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생을 책임져야지’라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남자와 연애하게 되면 안심되고, 의지가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는 영리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상대의 문제에도 잘 공감하고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나서는 행동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새벽 세시에 혼자 자기 무서우니까 와달라고 부탁해도 그는 뛰어서 달려올 사람이에요. 아 정말 웃긴 사람이야(즐거움)

12. 상대가 있는 혼이와 이어지기 위한 답천의 계획 (청악인 건 모르는 상태)

계획이랄 게 없습니다!!!(ㅠㅠㅠ)(웃겨서기절)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이 분 편법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신가 봐요. 연인이 있다는 시점에서 일단 팔짱 끼고 고개를 가웃거리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또 참 골치가 아파요. 결국에는 혼이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려놓기 위해서 맨땅에 헤딩하듯,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어필할 것이고 그것이 ‘기대고 싶은 연상의 매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랑 다를 게 없잖아요~!!)

13. 혼이의 연인이 청악이라는 걸 안다면 그의 태세는 어떻게 달라질지

혹시 답천 씨가 청악과 인연이 깊은가요? 굉장히 염증을 느끼네요. 또 너냐? 도대체 언제까지 내 앞길을 막을 생각이야? 같은 감상입니다. 하지만 태세 자체에 큰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질려하는 걸 보니 원래부터 대립하는 사이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여태 해오던 대로 하는 대신, 그에게는 청악을 미워할 이유 하나가 더 생겼을 뿐입니다. 혼이는 주의력이 섬세한 친구니까 그가 티내지 않으려 노력하더라도 이런 답천의 태도에서 와닿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14. 답천은 혼의 어떤 부분을, 어떤 순간을 좋아하는가

마이페이스에, 자신이 종잡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혼이의 모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너무 첫만남의 순간이 떠오르는 카드인데요... 길을 잃고 마을을 헤매는 발걸음이나, 아는 사람 얘기가, 뜬금없이 안내역을 맡겨져서 연락처까지 받아간 그 모든 흐름들이 다 이 카드의 상징과 부합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나왔다는 건, 역시 좋아하는데에 그럴듯한 ‘이유’가 없다는 뜻일테고 이는 즉 첫눈에 반한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그는 모르는 사이에 혼이에게 빠져들었다고 보여져요.

청악 씨 앞의 혼이는 관계를 책임지려 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분위기에 가까웠는데 담천 앞의 혼이는, 담천이 좋아하는 혼이의 모습은 그런 것과는 사뭇 거리가 머네요. 한 마디로 연하구나... 젊다 젊어... 같은 느낌이에요. (ㅋㅋㅋ)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어려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연하가 갖고 있는 특유의 생기와 무모함 같은 것들이, 담천 씨에게는 귀엽게 보이고 있다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